

넥슨재팬, 영업이익 33% 이상 주주환원... 배당금 두배 인상

도쿄서 '캐피탈 마켓 브리핑'
2027년 7500억엔 이상 매출 포부
FC 등 3대게임 매출 5300억엔 목표



이정현 넥슨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일 넥슨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성장 전략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뉴시스

넥슨이 일본 도쿄에서 투자자 대상의 대규모 IR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넥슨은 일본법인 넥슨재팬이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첫 대규모 IR 행사 '캐피탈 마켓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4일 밝혔다.

가장 먼저, 넥슨재팬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의 목표를 최소 10%, 최대 15%로 설정함과 동시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33%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사용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아울러 주주에게 두 배 이상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 배당금을 7.5엔에서 15엔으로 인상한다. 넥슨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주주 배당액은 각각 5엔이었다.

이를 위해 넥슨재팬은 강한 재무적 포부를 밝혔다. 2027년까지 7500억엔(약 6조9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약 2500억엔(약 2조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IP 프랜차이즈 확장 전략의 핵

심이 되는 넥슨의 3대 주요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IP를 합산한 매출 연평균성장률은 약 15%로, 이 3개 IP를 모두 합산한 총매출은 2027년까지 약 5300억엔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넥슨재팬은 재무적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IP 전략도 제시했다.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활동인 라이브 운영을 통해 기존 콘텐츠를 확장하고, 서구권 시장 공략 등을 통해 차세대 신규 IP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중국에서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넥슨이 기존 IP 확장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중국 모바일 게임 차트 상위권을 11주 동안 유지했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동시에 휴먼 유저층을 활성화시키며 '던전앤파이터' 시리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넥슨 측의 설명이다. 넥슨은

탄탄한 라이브 운영과 장기적인 신규 콘텐츠 계획을 통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흥행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신규 IP 공략의 하나로 서구권 시장에 나서기 위해 넥슨재팬은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도 제시했다.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지 문화권에 특화된 개발팀이 확보한 해당 지역 유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단순한 문자 번역을 넘어 문화권 간 존재하는 수백 가지의 미묘한 차이를 맞춤형해 더 깊은 몰입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더하겠다는 게 넥슨 측의 설명이다.

이정현 넥슨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지난 30년간 넥슨은 고도화된 라이브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IP 성장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유저들에게 넥슨만의 색다른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중소 협력사 판매대금 약 220억 규모 선지급

공영홈쇼핑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2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한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기존 지급일인 20일보다 8일 빠른 이달 12일부터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 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에 방송한 협력사는 방송이 끝난 후 최소 이틀 안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추석 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 협력사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대금 22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격적 기능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찾아가는 중진공 지향... 성장·회생기업 발굴에 주력”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취임 1주년
기업 경영회복 등 4대 방향도 제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후 지난 1년간 '소통'을 강조한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현장'에 집중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4대 역점 분야'도 제시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진공은 전국에 조직이 흩어져 있는 몇 안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업무를 위한 연계·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취임 후)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면서 "여전히 중진공을 잘 몰라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만큼 '찾아가는 중진공'을 지향할 것이다. 기업 현장으로 달려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실패했다)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이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19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중진공을 이끌고 있다.

강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권 실세의 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직전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이 모 이사장의 대통령 사위 본인 회사 채용 등과 관

련해 조직이 흔들리고, 이때문에 기관명이 최근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 "(기관에 피해가 될까)한편으론 걱정도 되지만 중진공에 대해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어 (정책 홍보가 돼)좀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사더라. 상식과 공정이 바탕이 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취임하고 두 차례 인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흔들림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역점에 들 '4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4대 방향에는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안정화 ▲성장 유망기업 혁신성장·글로벌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 당면 미래 도전과제 대응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서비스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이사장은 "티때프 사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데 추석 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직원들이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현장인 충남 천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세아·한라시멘트

아세아·한라시멘트 직원들 30여명 참여 '희망의 집짓기' 운동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직원들이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에 앞장섰다.

4일 양 사에 따르면 직원 30여 명이 최근 충남 천안 성거읍에 있는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현장에 봉사자로 나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한국해비타트는 지난 6월에 3자 간 후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직원들이 참여한 현장에선 목조 주택 16세대 건축이 한창이다. 양 사는 매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사용하는 시멘트와 드라이몰탈 전량 후원과 더불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도 함께 이어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중소기업 88곳 선정 R&D 지원

'24년 BIRD 프로그램'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24년 BIRD 프로그램' 대상기업 88개사를 선정, 1단계를 지원했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1단계에서 48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4일 기보에 따르면 'BIRD 프로그램'은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협업해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중기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R&D 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기보와 기정원은 민간중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1단계(Pre-R&D) R&D 기획자금을 기보에서 2억원 보증 지원 ▲2단계(R&D) R&D 수행자금을 기정원에서 최대 20억원 출연금 지원 ▲3단계(Post-R&D) R&D 사업화자금을 기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 등 중소기업의 R&D 전주기를 돕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R&D 연계과제에 시장 대응형 과제를 추가함으로써 전년 대비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김승호 기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유공자 포상

기정원, 30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오는 30일까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4일 TIPA에 따르면 관련 유공자 포상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및 수요처의 관심을 촉진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포상을 시행해 왔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중소기업부의 대표

중소기업R&D지원사업으로서,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투자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으로 총 10점이다. 신청 분야는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물론 수요처 및 투자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공고문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711@tipa.or.kr)로 접수하고, 자세한 신청요건 및 절차는 TIPA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